

## 음절구조에서 성분통어와 지배 \*

이 기 석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 차 례

1. 서 론
2. 성분통어와 음절구조
  - 2.1 성분통어의 기능
  - 2.2 음절구조의 성분통어
  - 2.3 한국어의 음절구조
  - 2.4 우분지 음절구조와 음운현상
3. 지배와 음절구조
  - 3.1 지배의 정의
  - 3.2 음절구조의 지배
  - 3.3 지배음운론의 음절구조
4. 결 론

---

\*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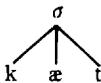
## 1. 서론

음절구조에 관한 논의는 크게 Kahn(1976)과 Clements & Keyser(1983)등의 평면적(flat) 구조<sup>1)</sup>와 Selkirk(1982)와 Fudge(1987)등의 계층적(hierarchical) 구조로 나뉜다. 이 두 부류의 구조에 관한 주장은 각각 나름대로의 증거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동일한 자료가 양쪽 주장의 증거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Fudge(1987)는 Clements & Keyser(1983)가 평면적 음절구조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꼭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층적 음절구조의 증거로 삼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두 주장 중 후자, 즉 음절의 계층적 구조가 일반적으로 더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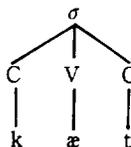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 이 계층적 음절구조도 다시 음절전부(onset)와 음절핵(nucleus)이 먼저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좌분지 구조와 음절핵과 음절후부(coda)가 먼저 하나의 단위를 이룬다는 우분지 구조로 나뉜다. Fudge(1987:360)에 의하면 세계의 모든 언어가 우분지 음절구조를 가지며, 좌분지 음절구조를 갖는 언어는 없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서 Fudge가 동원하는 방법중 하나는 통계적인 것으로, 그 한 예로서 음절핵과 음절후부가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1) 여기서 평면적 구조는 음절총과 분절음층 사이에 분지마디가 되는 성분이 없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hn(1976)과 Clements & Keyser(1983)은 음절구조에 대해 완전히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Kahn은 음절총과 분절음층이 직접연결되는 구조를 제시한 반면에 Clements & Keyser는 이 두 층 사이에 CV층을 두고 있다. 즉 평면적 구조이긴 하지만 이들은 각각 다음의 구조를 제시한다.

(i) Kahn



(ii) Clements &amp; Keyser



2) 이에 관해서는 Vincent(1986), Durand(1990), Hall(1992), Kent-towicz(1994)를 참조.

경우의 비율이 음절전부가 음절핵과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 밖에도 우분지적 음절구조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분절음배열제약, 강세배당규칙, 발화실수현상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 모두는 음절구조 외적인 증거에 불과하다.

그런데 Fudge의 주장에 대한 반례로서 최근 김차균(1987), 안상철(1988), 이기정(1992) 등의 한국 학자들은 한국어의 경우 보편적 음절구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분지 구조와는 달리 좌분지적 음절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 역시 그 증거로는 혼성(blending)을 위한 실험, 말놀이(language games), 축약(abbreviations), 발화실수(speech errors) 등의 외적 증거를 주로 증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음절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외적 증거는 첫째로 상대적 증거가 되기 쉬우며 둘째로는 그 증거가 불분명하거나 결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고 때로는 실험자의 의도에 따라 조작될 수도 있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음절구조에 대한 구조내적(structure-internal)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통사론의 주요 개념인 성분통어(c-command)와 지배(government)를 가지고 보편적 음절구조로서 우분지적 계층구조를 지지하고 덧붙여서 한국어의 음절구조도 좌분지 구조가 아니고 우분지 구조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 2. 성분통어와 음절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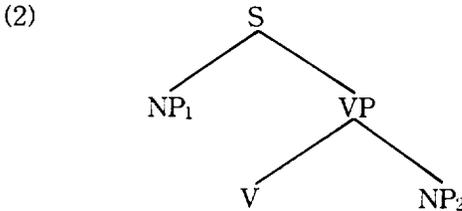
### 2.1 성분통어의 기능

Reinhart(1976:32)에 의하면 성분통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sup>3)</sup>

3) 이 성분통어는 Reinhart(1976) 이후 Aoun & Sportiche(1983)와 Chomsky(1986)에 의해 m-통어(m-command)로 수정 제안되고 있다. Reinhart의 성분통어는 (1)에서처럼 첫분지마디(first branching node)가 핵심개념이라면 m-통어에서는 최대투사범주(maximal projection)이 핵심개념이 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필요에 따라

- (1) Node A c(onstituent) commands node B if neither A nor B dominates the other and the first branching node which dominates A dominates B.

그러면 먼저 다음의 통사구조에서 이 성분통어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2)에서 NP<sub>1</sub>은 S로부터 직접관할(immediately dominated)되는 반면에 NP<sub>2</sub>는 그렇지 못하고 S와의 사이에 VP가 가로 놓여 있다. 성분통어의 정의 (1)에 의하면 NP<sub>1</sub>을 관할하는 첫 분지마디가 S인데 이것이 NP<sub>2</sub>를 관할하므로 NP<sub>1</sub>은 NP<sub>2</sub>를 성분통어하지만, NP<sub>2</sub>는 그 첫 분지마디인 VP가 NP<sub>1</sub>를 관할하지 못하기 때문에 NP<sub>1</sub>을 성분통어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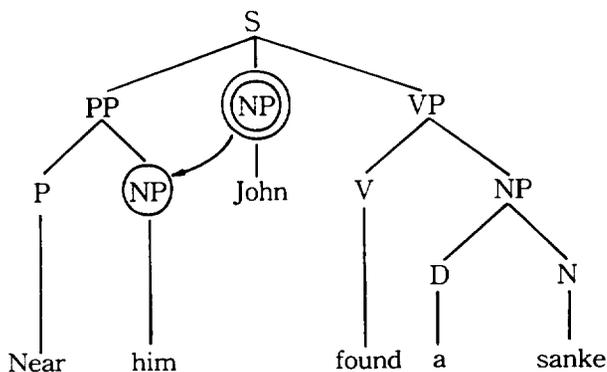
이와 같은 성분통어의 개념이 통사론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다음의 몇 가지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대명사는 그 선행사를 성분통어할 수 없다. 다음의 예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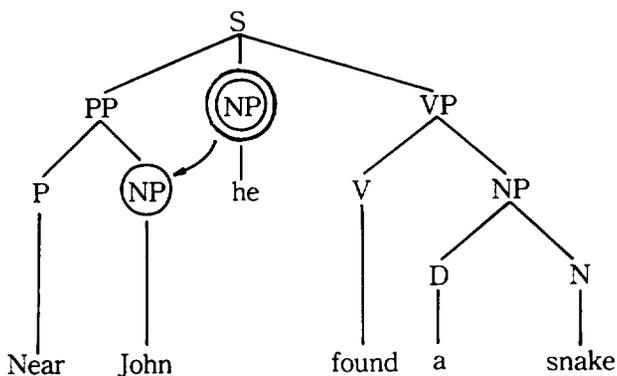
- (3) a. *John* found a snake near *him*.  
 b. \**He* found a snake near *John*.  
 c. Near *him*, *John* found a snake.  
 d. \*Near *John*, *he* found a snake.

(3a)와 (3c)가 문법적인 것은 이 두 문장에서 선행사인 John이 대명사 him을 성분통어하고 있기 때문이고, (3b)와 (3d)가 비문인 것은 각각 He와 he가 선행사인 John을 성분통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c)와 (3d)를 통사적 나무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4) a. [= (3c)]



b. \* [= (3d)]



(4)의 두 경우에서 두 개의 원으로 된 NP가 하나의 원으로 된 NP를 성분통어한다. 이 때 (4a)의 문법성과 (4b)의 비문법성은 성

분통어하는 자리에는 완전한 명사(full-fledged NP)가 차지해야하고 성분통어받는 NP자리에는 대명사가 차지하고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4b)에서와 같이 성분통어하는 NP 자리에 대명사가 차지하고 완전한 명사 John이 연결되어 있는 NP마디가 성분통어를 받을 때는 비문이 된다. 이로써 완전한 명사인 선행사와 대명사 사이에는 선행사가 대명사를 성분통어할 수는 있어도, 반대로 대명사가 선행사를 성분통어할 수는 없는 구조적 관계가 성립된다. 그런데 선행사가 어휘적으로 중(heavy)한 반면에 대명사는 어휘적으로 경(light)하다고 볼 때, 선행사는 통사적 구조에서 강위치(strong position)를 차지하므로써 성분통어하는 입장에 있고, 대명사는 약위치(weak position)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을 따를 경우, (2)에서 NP<sub>1</sub>의 자리는 S로부터 직접관할되는 자리로서 NP<sub>2</sub>를 성분통어하는 강위치가 되고 NP<sub>2</sub>의 자리는 S로부터가 아니라 VP로부터 직접관할되므로 NP<sub>1</sub>을 성분통어하지 못하는 약위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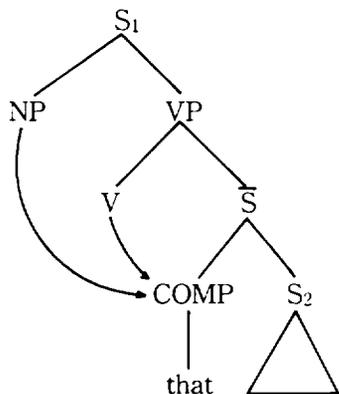
둘째로 성분통어의 개념이 영어의 보문자(complementizer), that의 생략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5) a. We think that John loves Mary.  
 b. We think  $\emptyset$  John loves 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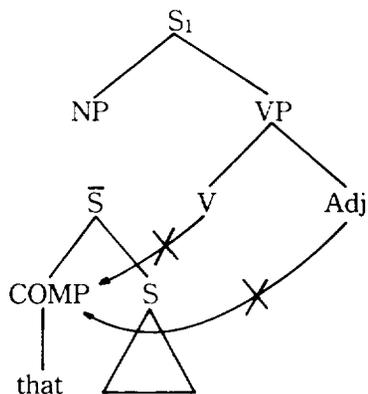
- (6) a. That John loves Mary is not true.  
 b. \*  $\emptyset$  John loves Mary is not true.

(5)와 (6)은 that의 생략과 관련해서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을 본다. 즉 (5)에서는 COMP의요소인 that이 생략될 수 있으나 (6)에서는 that이 없이는 비문이 된다. 이와 같은 대조를 성분통어와 관련지어 살펴보기 위해 나무그림으로써 위의 (5)와 (6)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 a. [= (5a)]



b. \* [= (6b)]



(7a)와 (7b) 모두에서 COMP의 최대투사(maximal projection)은 S이다. (7a)에서는 S의 범위 밖에 있는 NP나 V가 COMP를 성분통어하고 있음을 본다. 이에 반해서 (7b)에서는 S의 범위 밖에 있는 V나 Adj 어느 것도 COMP를 성분통어하지 못한다. 성분통어를 받고 있는 COMP의 위치를 약위치로 가정하고 성분통어를 받지 않는 COMP자리를 강위치로 가정할 경우 (7a)에서는 COMP가 약위치가 되므로 생략될 수 있으나 (7b)에서는 COMP가 강위치가 되므로 생략될 수 없다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5b)는 문법적으로 정문이 되고 (6b)는 비문이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7a-b)를 (2)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7a)에서 COMP는 (2)의 NP<sub>2</sub>자리에 있는 셈이고, (7b)의 COMP는 (2)에서 NP<sub>1</sub>자리에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때 (2)에서는 NP<sub>2</sub>가 약위치가 되며, 따라서 이 위치에서 약화현상 혹은 생략현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로 주제화(topicalization)현상과 관련해서 성분통어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을 보자.

(8) a. That girl, nobody seduced t.

b. That girl, John thinks that nobody seduced t.

- c. That girl, Mary said that John thinks that nobody seduced t.

(8)에서 t는  $\alpha$  이동(move- $\alpha$ )에 의해 'That girl'이 문장초 위치로 옮겨진 다음 남은 흔적(trace)이다. 그런데 이 t는 동사 'seduced'의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면서 주어인 'nobody'와 동사 'seduced' 모두로부터 성분통어받는다. 따라서 이 자리는 약위치로 가정되고 주제화현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어 자리에 있는 성분은 주제화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다음의 예문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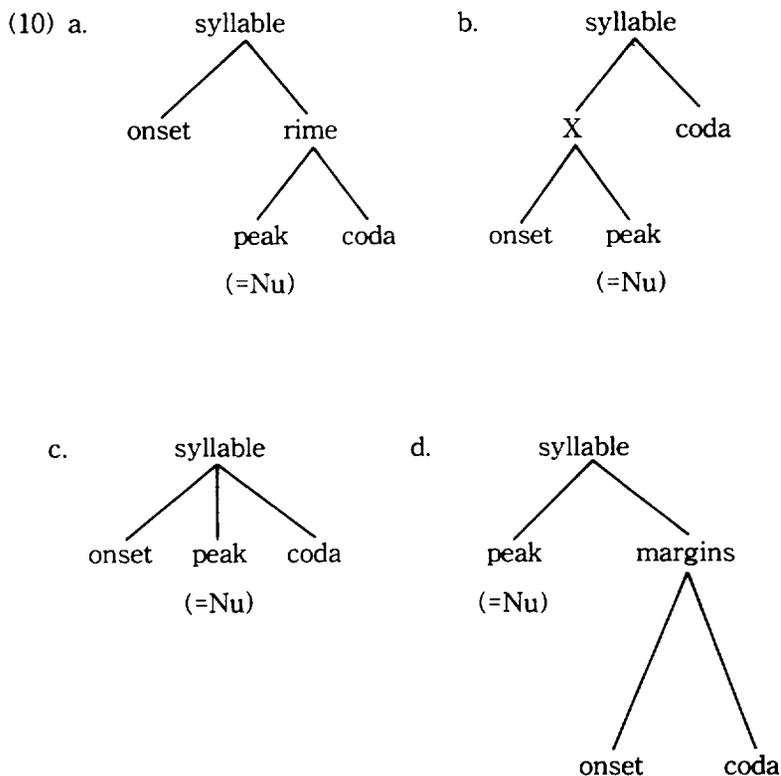
- (9) a. \*Nobody, t seduced that girl.  
 b. \*Nobody, John thinks that t seduced that girl.  
 c. \*Nobody, Mary said that John thinks that t seduced that girl.

(8)과는 달리 (9)에서는 주제화가 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t의 위치가 나타내주고 있듯이 주어 자리의 성분이 문장초의 위치로 이동해 갔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여기에서도 주어의 자리는 S마디로부터 직접관할되는 위치로서 동사와 목적어를 성분통어할 수 있는 강위치이다. 따라서 이 위치의 성분을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고 그자리에 t를 남길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몇가지 통사현상을 관찰해봄으로써 성분통어를 받는 위치의 마디에서는 어휘적으로 경(혹은 약)한 대명사가 오며 보문자 that의 생략이 가능하며, 또한 주제화현상으로 t를 남길 수 있는 반면에, 성분통어를 하는 위치에는 어휘적으로 중(혹은 강)한 완전한 명사가 오며 보문자 that의 생략이 불가하고 t가 올 수 없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 모든 통사현상을 (2)의 구조에 결부시켜 볼 때 주어의 자리인 NP<sub>1</sub>이 강위치이라면 목적어의 자리인 NP<sub>2</sub>는 약위치라고 말할 수 있다.

## 2.2 음절구조의 성분통어

음절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음절전부(onset), 음절핵(nucleus), 음절후부(coda)인데 이 세 성분이 음절마디( $\sigma$ )와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 몇가지 서로 다른 음절구조를 띠게 되는데 Fudge(1987)는 다음의 네 구조를 제시한 바 있다.



(10)의 네 구조 중에서 (10d)는 나머지 세 구조와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10a-c)에서는 onset(지금부터는 On으로 표시함)와 coda(지금부터는 Co로 표시함)

가 어떤 형식으로든 분리되어 있는데 반하여, (10d)에서는 이 두 성분이 바로 인접해 있다. Fudge도 이 구조의 경우에는 On가 peak (지금부터는 Nu로 표시함)를 넘어가야 하는 변형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구조는 일단 배제하고, 논의의 범위를 나머지 세 구조로만 제한한 가운데 앞에서 다루었던 성분통어의 개념을 음절구조에 적용시켜 보편적 음절구조로서 (10a)를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편의상 (10a-c)를 먼저 평면적 구조인 (10c)와 계층적 구조인 (10a-b)로 나누고, 후자를 다시 좌분지 구조인 (10b)와 우분지 구조인 (10a)로 나누어서 (10c), (10b), (10a)의 순서로 논의해 보자.

(10c)에서는 On와 Nu와 Co가 꼭 같이 음절마디로부터 직접관할되고 있는 평면적 구조이기 때문에 On와 Co가 서로를 성분통어하고 있다. Nu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On와 Co는 꼭 같이 Nu와 상호 성분통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c)와 같은 삼분지형의 평면적 음절구조로써는 On와 Co사이의 음운론적 특성상<sup>4)</sup>의 차이를 구분시켜줄 수가 없다.

다음으로 (10b)는 어떠한가 알아보자. (10b)는 이른바 좌분지적 음절구조로서 On와 Nu가 먼저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음을 본다. 이 구조에서는 On가 Co를 성분통어하지 못하는 반면에 Co는 On를 성분통어하고 있으므로 On의 자리가 약위치가 되고 Co의 자리는 강위치가 되는 것을 암시해 준다. 그러나 Hooper(1976)가 지적한 바와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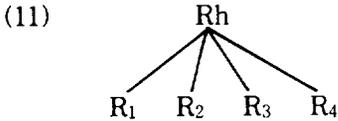
On가 강위치이며 Co는 약위치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음절구조 (10b)를 보편적 음절구조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10a)는 우분지 구조로서 겉으로만 보더라도 앞의 통사구조 (2)와 동일하다. 따라서 성분통어와 관련해서 성분들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데, On가 Co를 성분통어하는 반면에 Co는 On를 성분통어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강위치로서의 On와 약위치로서의 Co가 잘 부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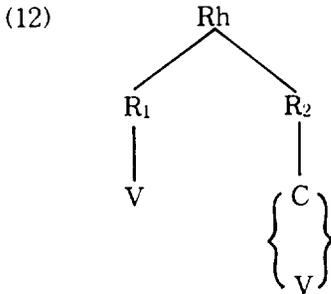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음절구조의 성분 중에서 On와 Co의 관

4)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2.4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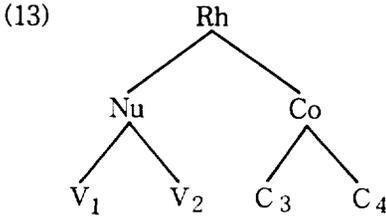
계를 중심으로 전개해왔다. 그러나 이 외의 다른 성분들도 성분통어으로써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일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해 이번에는 운모(rhyme)의 구조를 살펴보자. 우분지 음절구조에서 제시하는 운모가 Nu와 Co의 두 성분으로 구성되는 것과는 달리 Hogg & McCully(1987)는 다음의 평면적 운모구조를 제안한다.



이 구조에서는 R<sub>1</sub>부터 R<sub>4</sub>까지 운모를 구성하는 어느 요소도 나머지 다른 요소와 상호 성분통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이 구조를 운모의 구조로 받아들인다면 음절유형 VC와 VV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나타내기가 곤란해진다. 즉 (11)에 의하면 VC와 VV가 모두 다음의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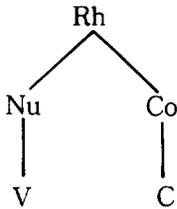


그러나 (12)는 VC와 VV의 두 음절유형 사이에 존재하는 유표성의 차이를 구분지어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는 운모의 구조에 있어서도 평면적인 구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Nu와 Co의 두 성분을 관할하는 계층적 구조를 지지한다. 계층적 구조에 의하면 위의 (11)은 다음의 구조로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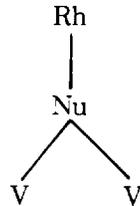


운모구조 (13)이 주어지면 이제 VC와 VV가 음절구조의 유표성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차이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13)을 토대로 할 경우 이 두 운모구조는 각각 아래의 (14a)와 (14b)가 된다.

(14)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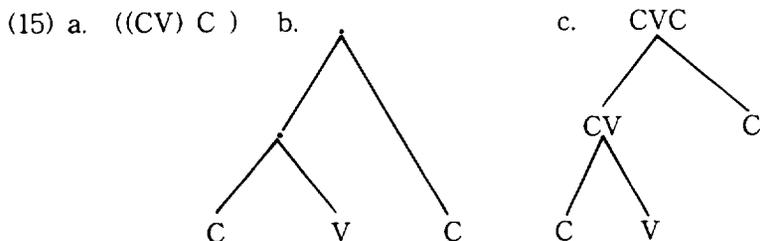


(14a)와 (14b)는 의견상으로 분지마디의 층위에서 차이가 있음을 본다. 즉 (14a)에서는 Rh마디가 분지하고 (14b)에서는 이보다 아래에 있는 Nu마디가 분지한다. 여기서는 음절구조 유형이 갖는 구체적인 유표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일단 보류하지만, 그래도 운모의 계층구조를 토대로 하는 (14)의 두 구조는 (12)와는 달리 VC와 VV가 서로 다른 유표값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성분통어의 개념을 음절구조의 성분에 적용시켜 볼 때 우분지 구조인 (10a)가 보편적 음절구조로서 받아들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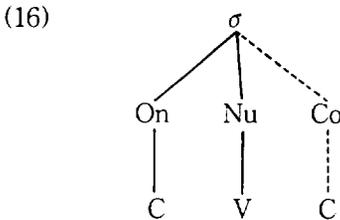
### 2.3 한국어의 음절구조

앞 절에서도 간략하게 언급된 바 있지만 최근 일부 한국 학자들은 한국어의 경우 세계 거의 모든 언어의 보편적 음절구조로 인정받고 있는 (10a)의 우분지 음절구조와는 달리, 독특하게 좌분지 음절구조인 (10b)를 주장한다. 예를 들어 김차균(1987)은 한국아동들이 습득하는 음절유형의 순서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음절유형 CV가 맨처음 습득되고 이어서 CVC와 VC가 습득되므로 CV가 우선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구조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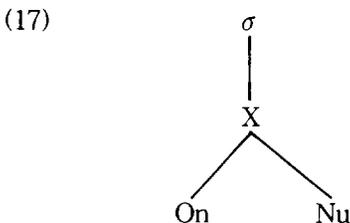


(15)의 세 구조는 표시만을 달리 했을 뿐, 사실은 하나의 구조, 즉 좌분지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김차균의 이 주장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음절유형의 습득 순서에서 CV유형이 가장 먼저이고 이어서 CVC, VC가 뒤따른다는 사실은 한국어를 습득하는 한국아동들에게만 해당되는 특유한 현상이 아니고 언어 보편적인 사실이다. 즉, 예를 들면 영어를 습득하는 단계의 미국아동들에게서도 그 순서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김차균의 주장논리를 따를 경우 당장 영어의 음절구조도 (15)의 구조인 좌분지구조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고, 영어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언어의 음절구조도 좌분지 구조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15)에서는 CV 음절유형이 최초로 습득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CV가 일차적인 단위를 이룬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

이 (15)처럼 반드시 계층적이어야 할 이유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 즉 (15a)가 무슨 근거로 (15b)나 (15c)로 표시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물음에 이르게 된다. 만일 (15a)가 CV유형을 먼저 습득하고 이어서 CVC유형을 습득하는 사실의 표시라면 오히려 평면적 구조인 (10c)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논의의 편의상 (10c)를 다음과 같이 다시 나타내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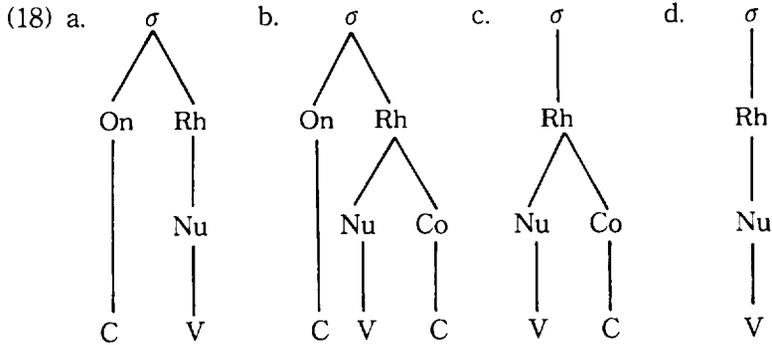


(16)에서 On와 Nu는 음절마디로부터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최초로 습득되는 음절유형인 CV가 음절마디로부터 분지되어 나온 성분임을 잘 나타내 준다. 이어서 CVC유형의 습득을 나타내 주는 것이 점선으로 연결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15b)나 (15c)처럼 계층적으로 나타내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만일 좌분지 구조의 입장에서 CV를 표시한다면 (15)를 고려할 때 다음의 구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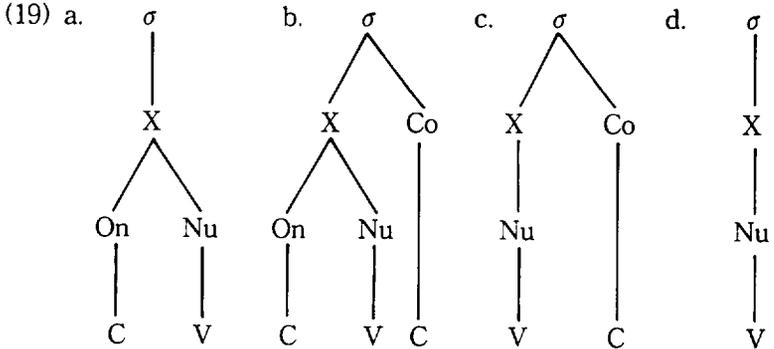
즉 On가 음절마디로부터 직접관할되지 않는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On와 Nu를 직접관할하는 마디( = X)가 최상위 마디( = σ)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최상위 마디의 관할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아동의 음절습득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결과와 부합되지 못하는 구조이다. Iverson & Wheeler(1987)에 의하면 아동의 음운습득은 단어나 음절과 같은 큰 단위로 부터 분절음의 작은 단위로 진행된다. 음절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경우에도 그 구조의 상층부부터 먼저 습득하기 시작해서 점차로 하층부로 확대된다. 이는 음절구조의 유효성과도 관련이 되는데 Ingram(1978)에 의하면 아동의 음절유형 습득은 CV, CVC, VC, V의 순서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처음 두 음절유형, CV와 CVC가 나머지 두 유형인 VC와 V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빈도를 보인다. 이 구분을 음절구조의 유효성으로 설명하기 위해 먼저 우분지 음절구조에 근거한 음절유형으로 나타내보자.



(18a-b)는 음절마디에서 분지가 있는 반면에 (18c-d)는 음절마디에서 분지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음절구조의 유효성과 관련해서 전자의 경우 음절마디의 분지로 인해 무표적인 구조가 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음절마디에서 분지가 없기 때문에 유효적인 구조가 된다(Kaye & Lowenstamm:1981). 그런데 만일 좌분지적 음절구조를 가정할 경우 문제의 네 음절유형의 유효성에 관한 설명이 어려워지는 것을 본다. 이를 위해 이번에는 좌분지 구조에 근거한 네

음절유형을 보자.



(19)에서 보면 음절마디의 분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분지가 일어나는 (19b)와 (19c)가 한 부류를 이루고, 분지가 일어나지 않는 (19a)와 (19d)가 다른 한 부류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 좌분지 구조에 근거할 경우 CVC와 VC가 CV나 V보다 더 무표적인 구조로 잘못 판정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언어에서 가장 무표적인 음절구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아동이 습득할 때 가장 먼저 습득하는 음절유형인 CV를 (17)과 같이 음절마디가 분지하지 않는 유표적 구조로 나타내는 좌분지 음절구조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는 김차균(1987)이 한국어가 좌분지 음절구조를 갖는 언어임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하는 '손'자의 학습방법을 보자.

- (20) a. '소' 짜에 ㄴ(니은) 하면 '손' 짜가 된다.  
 b. ㅅ(시옷) ㅛ(오) ㄴ(니은) 하면 '손' 짜이다.  
 c. \*ㅅ(시옷) 에 ㄴ(은) 짜 하면 '손' 짜가 된다.

김차균에 의하면 한국어 단어인 '손'은 (20a)와 (20b)의 방법으로는 가르칠 수 있어도 (20c)의 방법으로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

다. 즉 (20c)가 불가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음절구조는 우분지 구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그런 이유라면 반대로 (20a)가 가능하므로 좌분지 구조이며, 동시에 한국어는 (20b)도 가능하므로 계층구조가 아닌 평면적구조 (10c)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두 방법도 면밀히 살펴보면 (20a)는 (20b)를 실현하는 다른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20a)에서 '소'는 CV를 나타내고 이어서 'L'은 C를 나타내므로 이 두 성분의 결합은 계층적 구조의 형태가 아니고 선형적 분절음의 배열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20a)는 수학적 표시로  $(a + b) + c$ 에 해당되는데, 이는 (20b)의 수학적 표시인  $a + b + c$ 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20a)와 (20b)가 가능한 방법으로 허용되며 (20a)에서 'L'이 상위 마디에 연결될 이유가 없다. 수학의 연산법칙에 의하면 (20c)도 수학적 표시  $a + (b + c)$ 로서 위의 두 표시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c)가 불가한 것은 계층적으로 우분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20a-b)와는 달리 이것은  $a + b$ 라는 선형적 결합의 순서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a-c)는 그 어느 것도 음절의 계층적 특성과는 무관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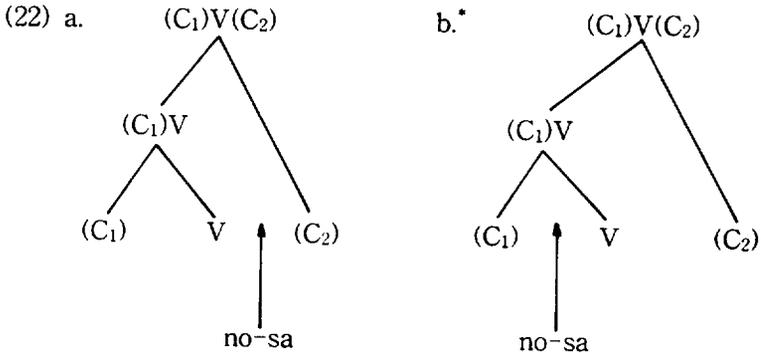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 김차균(1987)은 한국어의 좌분지적 음절구조의 결정적인 증거로서 일종의 말놀이인 노사말 규칙과 버부리말 규칙을 소개하고 있다. 이 두 규칙은 공통적으로 삼입규칙이므로 여기서는 노사말 규칙 하나만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그의 노사말 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1) 노사말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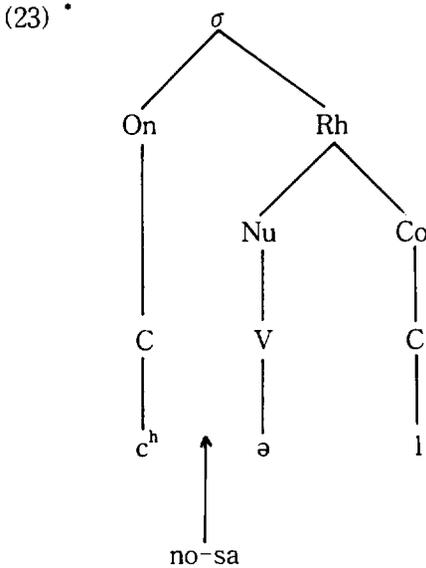
∅ ---> \$no\$sa / \$ CV\_\_\_\_\_ (C)\$

즉 이 규칙에 의하면 CVC에 'no-sa'를 삼입시킬 경우 CV-no-sa-C는 가능하지만 C-no-sa-VC로는 불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김차균은 한국어에서 CV는 뗄 수 없는 하나의 단위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CV-no-sa-C가 가능하고

C-no-sa-VC가 불가능한 것은 음절구조의 분지 방향과는 별도로 예측할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는 On에서나 Co에서 한 개 이상의 자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C-no-sa-VC는 결과적으로 음절초에서 허용될 수 없는 CCV-를 산출해낸다. 예를 들어 철수가 처-노-살-수는 될 수 있지만 츠-노-사-얼-수는 될 수 없는데, 이는 후자의 경우  $c^hno-sa-al-su$ 로서  $c^hno-$ 가 한국어에서는 불가능한 CCV-이기 때문이다. 만일 좌분지적 음절구조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를 경우에는 다음의 구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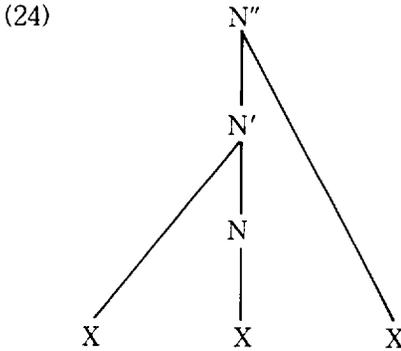


즉 (22a)에서  $(C_1)V$ 와  $(C_2)$  사이에 no-sa가 삽입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C_1)V$ 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것이며, (22b)에서는  $(C_1)$ 과 V 사이에 no-sa가 삽입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C_1)V$ 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만일 (22b)에서  $(C_1)$ 과 V 사이에 no-sa가 삽입될 수 있을 경우에는  $V(C_2)$ 가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C_1)$ 과 V 사이에 no-sa의 삽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V(C_2)$ 가 단위가 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설혹  $V(C_2)$ 가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no-sa가  $(C_1)$ 과 V 사이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 우분지형의 음절구조를 가정해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C_1)$ 과 V 사이에 no-sa의 삽입이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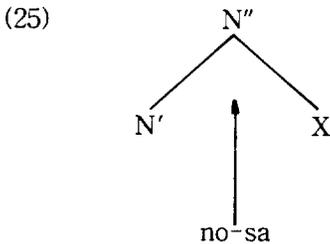


no-sa의 삽입이 좌분지의 (22b)에서와 우분지의(23) 모두에서 불가능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no-sa의삽입 가능성 여부는 음절구조의 분지 방향과는 상관이 없다. 오직 관련이 있다면 no-sa의 첫 분절음이 자음(C)인데, 이것이 (22b)에서도 (C<sub>1</sub>)에 이어져 CC가 되고, (23)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CC가 되므로 한국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분절음의 연속체를 만들어 낸다.

또한 (22b)에도 문제가 남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2b)에서는 (C<sub>1</sub>)과 V 사이에 no-sa가 끼어들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C<sub>1</sub>)V가 하나의 단위로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거꾸로 만일 어느 두 성분 사이에서 no-sa와 같은 말이 삽입될 수 있다면 이 두 성분은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없음을 암시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위의 (22b)를 Levin(1985)이 시도한 X이론에 기초한 구조로 나타내면 아래의 (24)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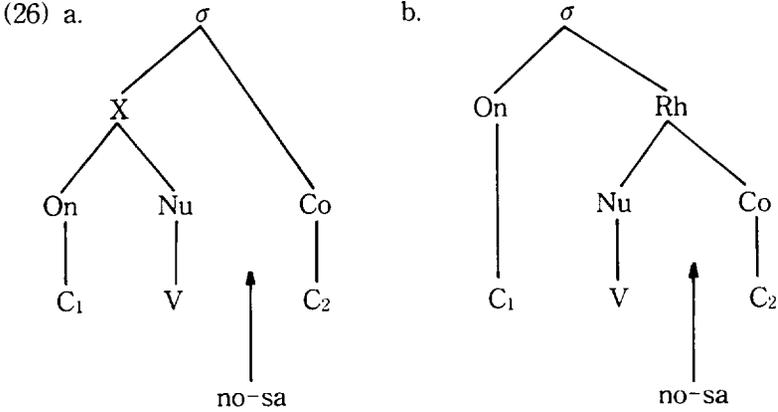
여기서 논의를 위해 N'로부터 관찰되는 모든 요소들을 무시해보면 다음의 구조를 얻을 수 있다.



(22a)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25)에서도 사실은 N'과 X사이에 no-sa가 삽입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25)의 N'', 즉 음절마디 자체도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없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한다. (22a)와 (25)에서 각각 (C<sub>1</sub>)V(C<sub>2</sub>)와 N''는 음절마디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명히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의하면 삽입위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노사말 규칙은 더이상 한국어의 좌분지적 음절구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음절구조의 분지적 방향에 앞서서 이 no-sa의 삽입으로 말미암아 두 개의 음절이 더 생긴다는 사실과 C<sub>1</sub>VC<sub>2</sub>에서 C<sub>2</sub>가 분리되어 sa음절의 Co로 가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no-sa가 좌분지 음절구조와 우분지 음절구조에서 각각 삽입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시해 본다.



즉 no-sa의 삽입에서 핵심은 (26)에서 보듯이  $C_2$ 를 연결하고 있는 Co의 탈연결이 어느 구조에서 더 타당한가의 문제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  $C_2$ 가 (26a)에서처럼 음절마디( $\sigma$ )의 관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26b)에서처럼 운모(Rh)마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서 다시 성분통어의 개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음절구조 내의 각 성분들이 성분통어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좌분지 구조인 (26a)에서 Co는 성분통어하는(c-commanding) 강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우분지 구조의 (26b)에서 Co는 On와 Nu로부터 성분통어되는(c-commanded) 약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Co는 (26b)의 구조에서 탈락될 수 있다. 따라서 no-sa 삽입이라는 말놀이 현상을 분석해보더라도 한국어의 음절구조도 다른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우분지적 계층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한국어의 격표지 축약현상에서도 음절구조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마련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한국어 예를 보자.

(27) a. na-nin

b. n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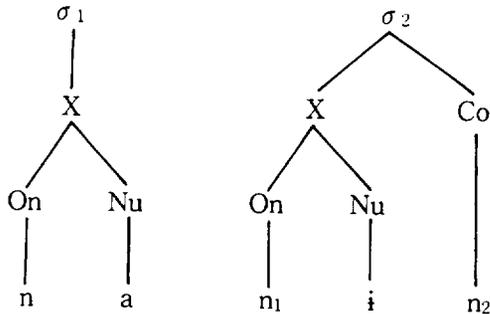
c. na-∅

I TOP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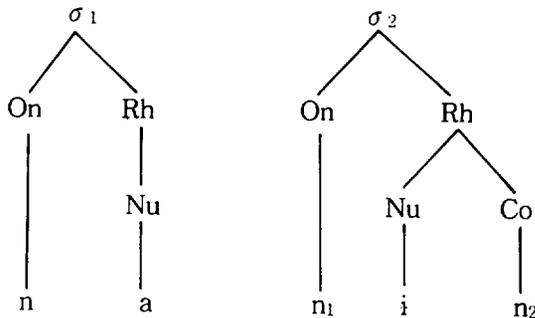
(27a)는 한국어의 일인칭단수 대명사 na에 주제격표지(topic marker)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고 (27b)는 (27a)의 축약형이다. 이 경우는 단음절어로서 주제격표지의 기능을 Co자리의 n이 담당하고 있다. 또 여기서 가장 논쟁이 될만하고 음절구조의 형태와 관련한 쟁점이 바로 이 n인데 이것이 (27a)의 주제격표지 nin의 어느 n이냐의 문제이다. 또 (27c)는 이 n 조차도 생략된 형태인데 생략의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서 이것도 음절구조의 형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곧바로 (27a)의 구조를 좌분지 구조와 우분지 구조로 나타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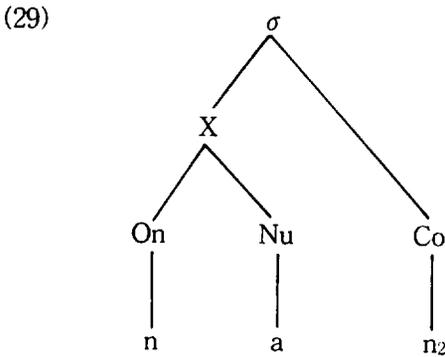
(28) a.



b.



(28a)에서는 주제격표지에 해당되는 음절( $\sigma_2$ )의 성분 X가 생략되고 남게되는 Co의 n이 앞음절( $\sigma_1$ )의 Co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럴 경우 일인칭 대명사 주제격표지의 축약은 다음의 구조를 갖게된다.



그런데 (28a)가 (29)로 바뀌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을 본다. 그 첫째는 (28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연 한국어의 주제격표지 nin에서 ni가 생략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에는 주제격표지의 표면형으로 nin이외에 in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nin의 구성을 'ni + n' 보다는 'n + in'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해보기 위해 '철수'와 '복남'의 두 이름에 각각 주제격표지를 붙여보면 다음과 같다.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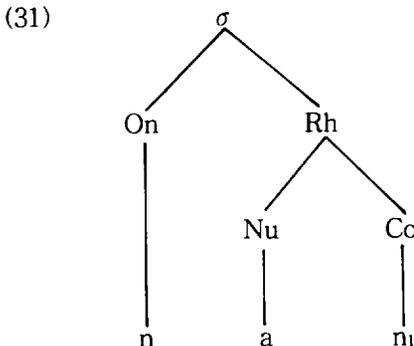
|            |              |              |               |
|------------|--------------|--------------|---------------|
| a.         | $n_1 + in_2$ | b.           | $ni_1 + n_2$  |
| 철수 + $n_1$ | 복남 + $in_2$  | *복남 + $ni_1$ | (*)철수 + $n_2$ |

(30a)에서는 n과 in 모두가 가능한 주제격표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두 형태가 nin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음을 암

시한다. 반면에 (30b)에서는 주제격표지로서  $ni$ 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nin$ 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30b)의  $n$ 도 음절구조의 성분이 차지하는 기능을 고려할 때 사실상 주제격표지로는 부적합한 것이 된다. 따라서 (28a)의 구조는 타당치 못하다. 또 (29)에 (28a)에서 생략된 주제격표지의 부분, 즉  $ni$ 를 덧붙여 보면  $*nan-ni$ 가 된다. 그러나  $nan-in$ 은 주제격이 잉여적이고 음성적으로도 잉여적이긴 하지만, 앞의  $*nan-ni$ 보다 훨씬 더 용인되며 이것은 연음현상으로  $na-nin$ 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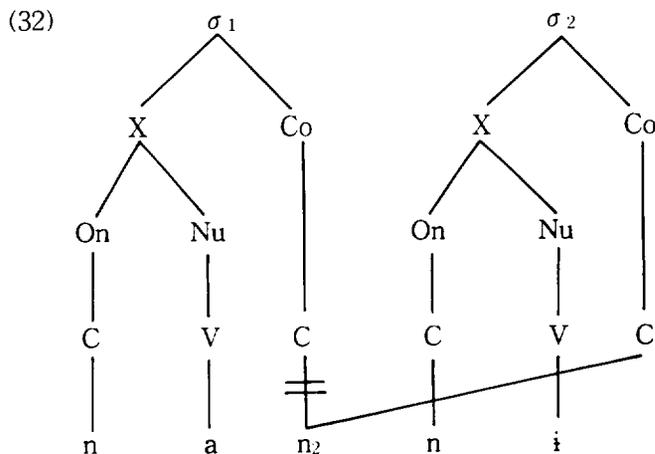
둘째로 (27c)의 형태를 보자. 이는 표면적으로 주제격표지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인데 (27a)에서  $nin$ 이 생략되거나 아니면 (27b)에서  $Co$ 의  $n$ 이 생략되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중 후자의 입장에서 볼 경우 좌분지 음절구조로는 (29)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격표지  $n_2$ 를 연결하는  $Co$ 가 음절마디( $\sigma$ )로부터 직접 관할되고 있으며, 따라서 성분통어하는 (c-commanding)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이 위치에서 분절음을 삭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분지 구조인 (28b)는 어떠한 특성을 갖는 구조인지 알아보자. 여기서는 운모마디의 관할하에 있는  $in_2$ 이 생략되고, 남은 요소인  $\sigma_2$ 의  $On$ 에 연결된  $n_1$ 이 탈연결되며 그 대신 앞음절( $\sigma_1$ )의  $Co$ 에 연결된다. 그 결과는 (29)의 대역이 되는 다음의 (31)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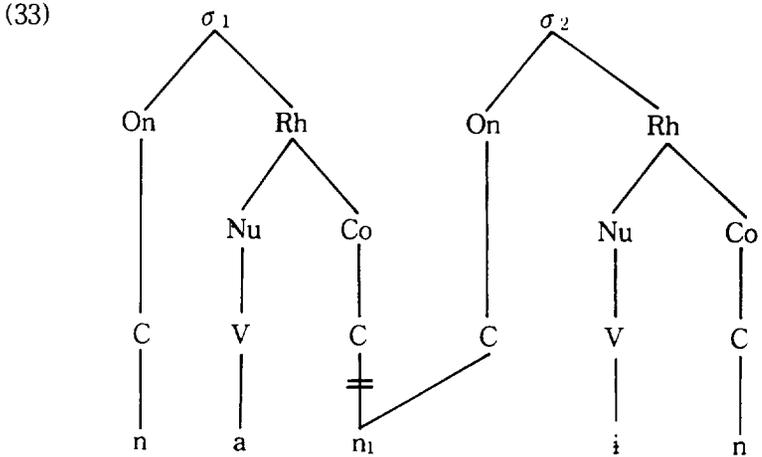
(29)와는 정반대로 (31)에서는 주제격표지를 연결하고 있는 Co가 음절마디로부터 직접관할되지 않고 분지하는 운모의 직접관할하에 있다. 따라서 (31)의 Co는 성분통어를 받는(c-commanded) 약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의 삭제가 가능하게 된다. 즉, 우분지의 (31)이 (27b)로부터 축약형인 (27c)를 산출해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27b)에서 (27a)로 복원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논의해 보자. 먼저 좌분지구조의 입장에서 본다면 (29)에서 (28a)로 복귀해야한다. 이 때 (29)에서 Co의  $n_2$ 를 주제격표지음절( $\sigma_2$ )의 Co로 연결시키고 삭제되었던  $n_1$ 를 X의 관할하로 삽입시키면 다음의 과정이 예상된다.



그런데 (32)에서 보는 것처럼  $n_2$ 가 원래의 자리인  $\sigma_2$ 의 Co로 복귀할 때 연결선의 교차가 생기는 것을 본다. 즉 이런식의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좌분지 음절구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우분지 음절구조에서는 (27b)에서 (27a)의 복원이 가능하다. 이는 구체적으로 (31)에서 (28b)로의 복원을 뜻하는데 (31)의 Co에 연결된  $n_1$ 을 주제격표지음절( $\sigma_2$ )의 On에 연결시키고 삭제되

었던 in 을 Rh의 관할하에 삽입시키면 된다. 이를 위해 다음의 구조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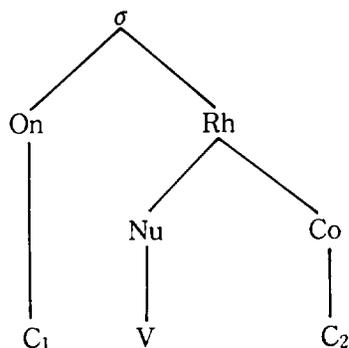
(33)에서는 (32)와 같은 연결선의 교차가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27a)로의 복원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로 인해 한국어의 음절구조도 우분지적 계층구조임을 주장할 수 있다.

#### 2.4 우분지 음절구조와 음운현상

지금까지 우리는 성분통어의 개념을 이용해서 보편적 음절구조로서 우분지 음절구조를 확립하였고 더 나아가서 일부 한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한국어의 좌분지 음절구조에 대한 재분석을 음절구조 내부의 성분들간에 존재하는 계층적 관계를 통해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도 예외가 되지 아니하고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10a)의 우분지 음절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이제 여기서는 이 우분지 음절구조가 갖는 언어학적 특성을 몇가지 음운현상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의의 편의상 우분지 음절구조를 다음의 (34)와 같이 다시 제시해 본다.

(34)



(34)에서 On는 음절초(syllable-initial)에 해당하고 Co는 음절말(syllable-final)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듯이 음절은 내재적으로 강한 위치와 약한 위치를 갖는데, 음절초가 강한 위치가 되고 음절말이 약한 위치가 되는 것은 언어보편적 현상이다(Vennemann:1972).

(34)에서 자음을 포함하는 음절유형으로는 CV 와 VC 를 들 수 있다. 이 두 유형의 차이는 모음(V)을 기준으로 한다면 음절초 자음을 갖는 것과 음절말 자음을 갖는 것의 차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유형은 음절구조의 유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CV는 가장 무표적인 음절로 세계의 어느 언어도 이 유형의 음절만은 반드시 갖고 있으며 아동이 습득하는 최초이며 또한 가장 빈번한 음절구조이다. 여기서는 음절구조의 유효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목적이 아니므로 개략적으로만 언급해도 무방하리라 보는데, VC는 Clements & Keyser (1983: 27-32)가 말하는 핵심음절(core syllables) 중에서 가장 유효적인 음절유형이다. 이 차이는 앞에서 논의한 성분통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34)에서 On는 Nu와 Co 모두를 성분통어하는 강위치이기 때문에 자음(C)에 최적의 자리가 되는 반면에 Co는 On와 Nu 모두로부터 성분통어받는 약위치이므로 자음에 적합한 자리가 못된다. 따라서 이를 간단히 이분법적으로 말하면 무표적인 CV 대 유효적인 VC가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서 (34)의 On와 Co에 오는 자음에서 서로 다른 음운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의 무성폐쇄음 (voiceless stops)은 음절초 자리에서는 강화현상인 기음화 (aspirated)가 되는 반면에 음절말 자리에서는 약화현상으로 비개방 (unreleased) 된다.

- (35) pin [p<sup>h</sup>in], open [ow-p<sup>h</sup>ən], top [t<sup>h</sup>ap ],  
topnotch [t<sup>h</sup>ap-nac]

둘째, 음절초에서 일어나는 강화현상으로 스페인어의 전이음 (glides) /y,w/ 이 선택적으로 장애음이 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다음의 예에서 보게 된다 (Hooper:1976).

- |      |         |                      |            |                     |
|------|---------|----------------------|------------|---------------------|
| (36) | hielo   | huevo                | haya       | agua                |
|      | 'ice'   | 'egg'                | 'there is' | 'water'             |
|      | [yelo]  | [weβo]               | [aya]      | [awa]               |
|      | [ŷelo] | [g <sup>w</sup> eβo] | [aŷa]      | [aɣ <sup>w</sup> a] |

셋째, Vennemann(1972)에 의하면 동화현상 (assimilation)은 약화현상으로서 음절초위치에서 보다는 음절말위치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다음의 스페인어에서 비음동화현상이 일어나는 위치를 유의해 보자 (Hooper: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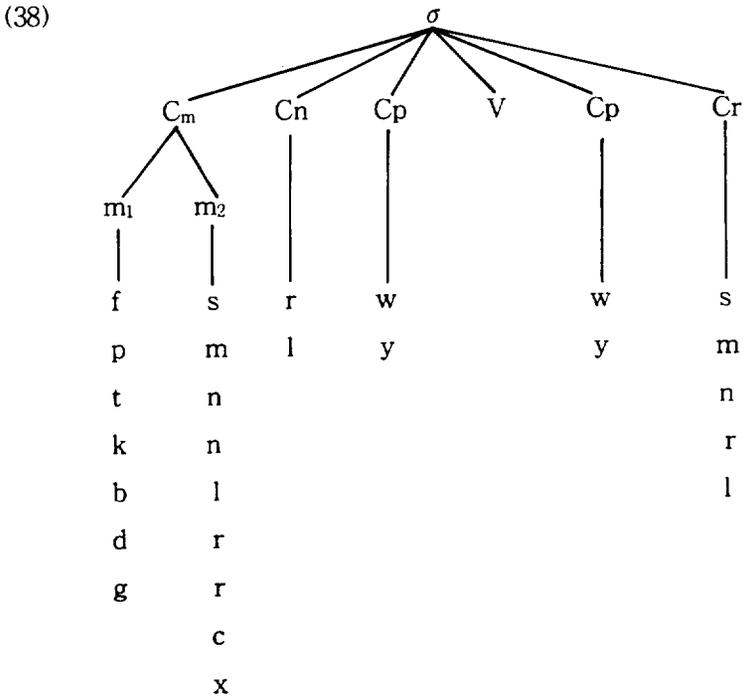
- |         |          |                        |            |
|---------|----------|------------------------|------------|
| (37) a. | un hielo | [uñyelo] <sup>5)</sup> | 'an ice'   |
|         | un huevo | [uñweβo]               | 'an egg'   |
| b.      | nieto    | [nyeto]                | 'grandson' |
|         | nuevo    | [nweβo]                | 'new'      |

(37a)의 예에서는 비음 n 이 음절말에 위치해 있으므로 그 다음 음절의 음절초를 차지하는 전이음, y와 w의 조음위치(place of

5) 여기서 [n]은 치경구개비음(palatoalveolar nasal)이다.

articulation)를 따라 동화한다. 다른 한편으로 (37b)에서는 음절초의 비음 n 이 뒤따르는 전이음과 같이 On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넷째, (34)의 On 와 Co는 이들 위치가 허용하는 분절음의 수와 질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즉, 강위치인 On 에서는 약위치인 Co 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분절음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며 그 질에 있어서도 Vennemann(1972)이 제시하는 자음강도(consonantal strength) 에서 강한 자음일 수록 강한 On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을 띤다. 이와 관련해서 Hooper(1976)가 제시하는 다음의 스페인어 분절음 분포도를 참고해 보자.



(38)에서 음절초 자리인  $C_m$  은  $m_1$  과  $m_2$  로 나뉘는데  $m_1$ 은 그

뒤에 다른 자음이 뒤따라와 자음군을 형성할 수 있는 장애음들이고,  $m_2$ 는 다른 자음과 더불어서 자음군을 형성할 수 없는 자음들이다. (38)이 나타내고 있는 특징은 스페인어에서 모든 자음이 음절초 자리에 올 수가 있고, 따라서 음절초의 자리에서는 모든 가능한 음성적 대조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음절말의 자리에는 위 분포도의  $C_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m_2$ 의 부분집합인 다섯개의 분절음으로 제한된다. 이와 거의 유사한 분절음의 분포로 Vincent(1986:306)의 태국어 자료도 참고할 만한데, 여기서도 음절초에 올 수 있는 분절음 수가 음절말에 올 수 있는 분절음 수보다 훨씬 많음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바, 한국어의 On에는 거의 모든 자음이 다 올 수 있는 반면에 Co에는 /p,t,k,m,n,f,l/의 자음 7개만이 올 수 있다. 이처럼 음절구조에서의 각 성분에 따르는 분절음 수에 대한 커다란 차이는 언어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는 우연이 아니고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성분이 갖는 내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On와 Co의 차이는 각 위치에 허용되는 분절음의 질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Vennemann(1972)의 제안대로 음절구조의 내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강위치에는 자음강도가 강한 것이 오고 약위치에는 약한 자음이 온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Vennemann은 현대 아슬란드어의 자음강도의 척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Vennemann:1972,p.6).

|      |        |   |   |   |   |   |   |   |  |
|------|--------|---|---|---|---|---|---|---|--|
| (39) |        |   |   |   | f |   |   |   |  |
|      |        |   |   |   | b |   |   |   |  |
|      | j      |   | m | d |   | p |   |   |  |
|      | v      | r | l | n | g | s | k | t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

(39)에서 숫자가 클수록 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음 중에서 장애음이 강하고 비음이 이보다는 덜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유음과 전이음들이 가장 약한 자음으로 분류되고 있다. Vennemann은 이를 토대로 해서 다음의 음절경계삽입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Vennemann:1972,p.7).

$$(40) \emptyset \rightarrow \$ / V \text{ --- } \left( \begin{array}{c} C \\ m \text{ strength}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c} C \\ n \text{ strength} \end{array} \right) V$$

Condition:  $m \geq 6$  ,  $n \leq 2$ .

이로써 음절초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자음강도에 의해 제약받고 있으며, 그 제약은 (39)에 근거해서 일반적으로 음절초에는 강한 자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On와는 다르게 Co는 중화(neutralization)의 자리가 된다. 다음의 한국어 예를 보자.

- (41) /nas/ ----> [nat<sup>1</sup>] 'sickle'  
 /nat/ ----> [nat<sup>1</sup>] 'stack'  
 /nac/ ----> [nat<sup>7</sup>] 'day'  
 /nac/ ----> [nat<sup>7</sup>] 'face'  
 /nat<sup>h</sup>/ ---> [nat<sup>1</sup>] 'each piece'

(41)의 예는 음절말 위치에서 /s/ /t/ /c/ /č/ /t<sup>h</sup>/ 등의 서로 다른 분절음들이 하나의 소리 [t]로 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이 분절음들이 음절초의 위치에 있게 되면 각각의 분절음은 자체의 소리로써 대조를 유지한다.

- (42) /san/ ----> [san] 'mountain'  
 /tan/ ----> [tan] 'sweet'  
 /can/ ----> [can] 'glass'

/čan/ ----> [čan] 'cold'  
 /tʰan/ ---> [tʰan] 'burned'

여섯째, On와는 달리 Co는 또한 삭제의 자리가 된다. 이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으로 예를 들면 다음의 라틴어와 스페인어 사이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Hooper:1976,p 201).

|      |          |   |        |          |
|------|----------|---|--------|----------|
| (43) | 라틴어      | > | 스페인어   |          |
|      | sep-tem  | > | siete  | 'seven'  |
|      | ur-sum   | > | oso    | 'bear'   |
|      | pul-sum  | > | poso   | 'rest'   |
|      | spon-sum | > | esposo | 'spouse' |

또 다음의 한국어 예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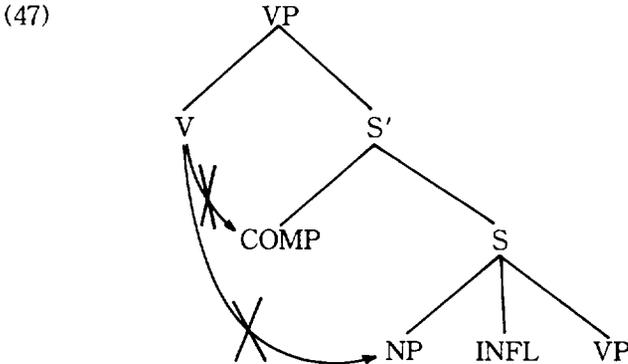
|       |    |          |              |    |           |                  |
|-------|----|----------|--------------|----|-----------|------------------|
| (44). | a. | ul-ta    | 'to cry'     | b. | təp-ta    | 'to be warm'     |
|       |    | u -ni    | 'do you cry' |    | tə-wə     | 'it's warm'      |
|       |    | ul-ci-ma | 'don't cry'  |    | tə-un     | 'warm-adjective' |
|       |    | u-ci-ma  | 'don't cry'  |    | tə-u-myən | 'if it's warm'   |

이 한국어의 예에서도 삭제가 되는 부분은 Co이지 결코 On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분지 음절구조에서 On 와 Co가 갖는 서로 다른 음운론적 특성에 대해 알아 보았다. 요약컨데 우분지 음절구조 (34)에서 On는 성분통어하는 자리로서 강위치가 되는 반면에 Co는 성분통어를 받는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약위치가 된다. 따라서 강위치인 Co와 관련되는 현상으로는 영어 무성폐쇄음의 기음화, 스페인어 전이음의 장애음화,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의 무제한적인 분절음의 수, 높은 자음강도를 가지는 분절음의 자리, 중화현상이 생기지 않는 자리, 삭제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 등으로서의 특징을 띤다. 반면에 약위치인 Co와 관련되는 현상으로는 비개방,동화현상, 제한적인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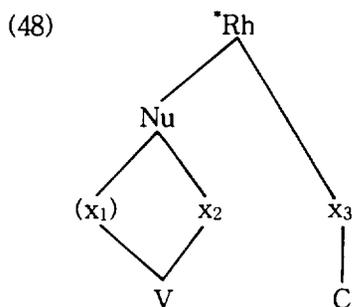
핵인  $\alpha$ 의 피지배자(governee)가  $C_1$ 뿐만 아니라  $C_2, C_3, C_4$ 도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위의 정의에 의하면 다음의 구조에서  $V$ 는  $COMP$  나  $NP$ 를 지배하지 못한다.



(47)에서  $V$ 가  $COMP$ 와  $NP$ 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 사이에 최대투사범주  $S'$ 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S'$ 는 지배관계에 장벽이 되는 셈이다. 이상의 관점을 종합하면, 지배관계란 최대투사범주를 지배범주로 하면서 상호성분통어하는 핵요소와 보충요소 사이의 관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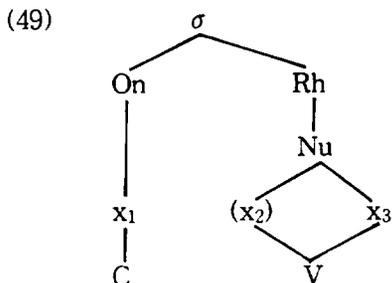
### 3.2 음절구조의 지배

음절구조의 지배에 관한 논의의 시발은 Lowenstamm & Kaye(1982)에서 제안된 운율지배원리(principle of prosodic government)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통사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절구조의 지배관계를 성분통어의 개념을 토대로 하면서, 예를 들어 폐쇄음절의 장모음축약과 같은 언어 보편적 현상을 운모 안에 있는 핵요소가 모든 다른 골격점(skeletal points)을 성분통어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지배관계로써 설명한다. 다음의 운모구조를 보자.



(48)과 같은 여과장치는 분지하는 운모 안에 분지하는 음절핵을 갖는 구조를 배제한다. 그것은 (48)에서 핵요소인  $(x_1)$ 이 운모의 직접관할을 받는 골격점  $x_3$ 를 성분통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배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사론의 지배관계를 액면 그대로 음절구조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Kaye, Lowenstamm, Vergnaud(1985)(지금부터는 KLV로 약함)는 지적하는데, 이를 위해 이들은 Luganda어에서 구개음화의 예, /kiintu/ 'thing' ---> [ciintu]를 들고 있다. 구개음화를 전설모음과 그 앞에 오는 자음사이의 지배관계로 가정할 경우, 이들의 지적대로 통사론의 지배정의처럼 엄밀한 구조적 지배만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의 단어 /kiintu/에서 장모음이 음절초의 k를 c로 구개음화시키는데 이 때의 음절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9) 에서 음절핵  $x_2$ 가  $O_n$ 의 골격점  $x_1$ 를 지배하지 못하므로 Luganda어의 구개음화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절구조에서의 지배관계는 통사론에서처럼 엄밀하게 성분통어의 개념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KLV(1985)에서는 음운론의 지배에서는 성분의 계층적 관계와 더불어 인접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3.3 지배음운론의 음절구조

앞 절에서 언급한 바처럼 음절구조의 지배는 통사론의 지배와 다르다. 이 절에서는 KLV(1985)를 비롯한 Charette(1989), Charette(1991) 등의 지배음운론이 제안하는 음절구조를 간단히 소개하고 이들의 음절구조도 기본적으로는 우분지구조의 입장에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지배음운론에서는 음절마디( $\sigma$ )가 성분이 되지 않고<sup>6)</sup>  $O_n$ , Rh, Nu 만이 음절성분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Co도 Rh에서 분지되는 성분이 아니다. 이와 같은 성분들은 골격점과 연결되는데 이 골격점들의 지배관계는 다음의 인허원리(licensing principle)를 전제로 한다.

#### (50) Licensing Principle(Kaye 1990b:306)

All phonological positions save one must be licensed with a domain.

The unlicensed position is the head of this domain.

즉 이 원리는 허가 받지않는 핵요소를 제외한 모든 골격점들은 한 영역 안에서 허가받아야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허가는 일반적으로

6) 지배음운론의 음절구조에서 음절마디를 성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대해서 KLV(1990)은 Aoun(1979)를 참조하고 있으며, 그들 나름으로도  $O_n$ 와 Rh 사이에 분포적 제약이 없음을 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첨가할 수 있는 것은 음절구조의 유표성에 있어서  $O_n$ , Rh, Nu 등의 성분들은 분지가 될수록 더욱 유표적이 되는 것과 달리 음절마디( $\sigma$ ) 만은 분지가 될때 무표적이 되고 분지가 없을때 오히려 유표적이 되는 차이점도 지배음운론에서 음절마디를 성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로 골격점 사이의 지배관계로 결정된다. 지배음운론에서 이 지배 관계를 규정하는 두 개의 주요 원리로 다음의 인접원리(adjacency principle)와 방향성원리(directionality principle)가 있다.

(51) a. Adjacency Principle

The governor [=head] must be linearly adjacent to the governee [=dependent]

b. Directionality Princi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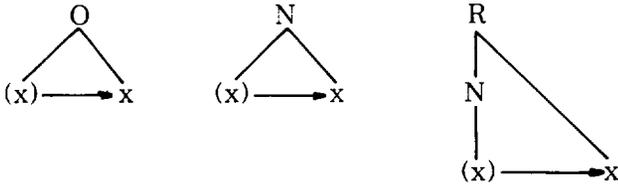
Government is strictly directional.

(i) left-to-right within constitu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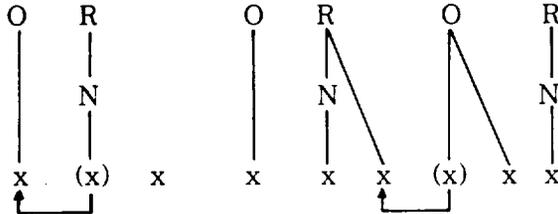
(ii) right-to-left across constituents

이런 원리에 근거해서 지배음운론에서는 다음 구조의 지배관계를 제시한다.

(52)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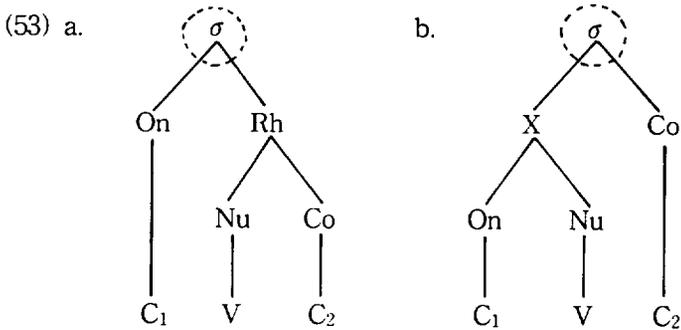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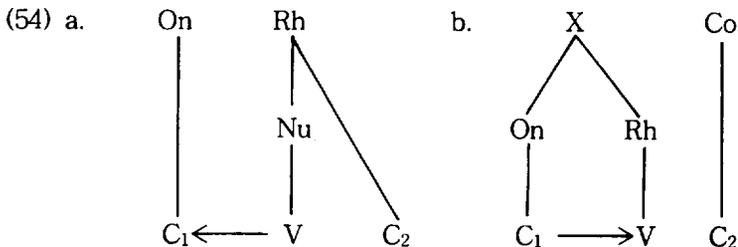
(52a)의 세 구조는 성분내지배(constituent government)로서 음절 성분들, 즉 O,N,R이 지배영역이 되면서 (51a)와 (51b)에 의해 왼쪽의 핵요소(x)가 오른쪽의 보충요소(x)를 지배한다. 반면에 (52b)는

성분간지배(interconstituent government)로서 (51a)와 (52bii)에 의해 오른쪽의 핵요소(x)가 지배자(governor)가 되며 바로 인접한 왼쪽의 요소가 피지배자(governee)가 된다.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되었지만 지배음운론에서는 음절마디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이 음절마디가 하나의 성분으로서 인정된다면 (51)로 인하여 On와 연결되는 골격점이 핵요소가 되고 Nu에 연결되는 골격점은 오히려 보충어가 되는 모순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지배음운론의 틀을 고려하면서 앞장에서 논의했던 우분지와 좌분지 음절구조를 비교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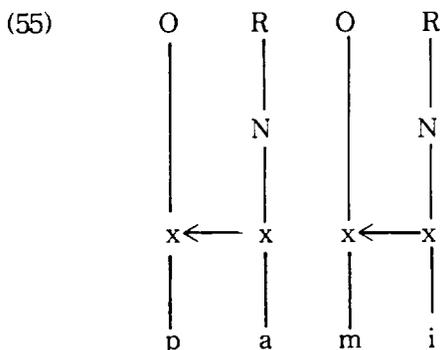


지배음운론의 원리에 따라 (53)에서 점선 부분을 버린다고 가정하고 하면 위의 두 구조는 각각 다음의 형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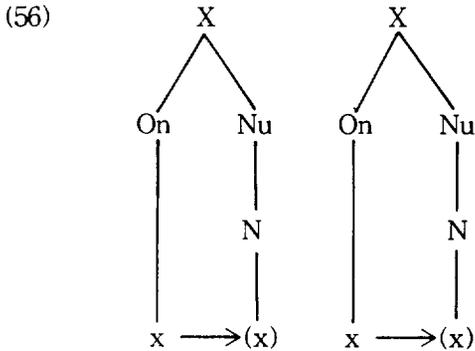
(52a)의 경우처럼 (54b)에서도 분지마디 X는 지배영역이 되므로, 이 영역의 왼쪽 골격점의 C<sub>1</sub>이 핵요소(=지배자)가 되고 오른쪽 골격점인 V는 보충어(=피지배자)가 되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54a)에서는 On와 Rh이 독자적인 성분으로 놓여있음을 본다. 지배이론에 의하면 분절음의 유인값(charm value)이 어떠한든간에 음절핵과 그 앞의 음절전부 사이에는 성분간지배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54a)는 음절의 우분지 계층구조를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에 대한 실제의 예로서 한국어의 '밤-이(night-subject marker)'가 지배음운론의 음절구조로 어떻게 표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을 보자.



(55)에서 보는 것처럼 지배관계가 서로 다른 성분인 O와 R 사이에 성립되어 있다. 따라서 (51bii)에 의해 지배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만일 좌분지 음절구조의 입장에서 지배관계를 표시해 본다면 (54b)처럼 다음의 바람직하지 못한 다음의 구조를 얻게 된다.



(56)에서 보듯이 좌분지구조에서는 분지마디(X)를 드러내게 되므로 결국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성분내지배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나 (56)에서 성분내지배관계는 음절핵이 지배자가되지 못하고 피지배자가 되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끈다.

#### 4. 결 론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보편적 음절구조로서의 우분지 구조, 즉 (10a)의 구조를 입증하려는 시도를 해보았다. (10a)의 구조는 최근의 많은 학자들 사이에 이미 보편적 음절구조로 인정받고 있는 바이지만, 이 논문은 특별히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첫째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10a)를 옹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절음배열제약, 강세배당규칙, 발화실수, 말놀이, 축약현상 등의 외적 자료증거에 의존하는데 반해서 이 논문에서는 음절을 구성하는 성분들 상호간의 관계를 통사론의 주요 개념인 성분통어와 지배를 가지고 설명하는 구조내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와 병행해서 둘째로는 일부 한국 언어학자들이 주장하는 한국어의 좌분지 음절구조, 즉 (10b)를 위한 외적 증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한국어의 경우도 성분통어와 지배라는 언어보편적 개념에 기초해서 우분지 음절구조를 갖는 언어임을 주장하였다.

## 참고문헌

- Ahn, S.-C.(1988) "A Revised Theory of Syllabic Phonology,"  
Ono (Language) 13: 333-62, Linguistic Society of Korea.
- Charette, M.(1989) "The Minimality Condition in Phonology,"  
Journal of Linguistics 25:159-87.
- \_\_\_\_\_ (1991) Conditions on Phonological Government,  
Cambridge Studies in Linguistics 58.
- Clements, G.N. & S.J. Keyser(1983) CV Phonology. Cambridge,  
MA: MIT Press.
- Davis, S.(1985) Topics in Syllable Geometry,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rizona.
- Fudge, E.(1987) "Branching structure within the syllable,"  
Journal of Linguistics 23: 359-77
- Gim, C.-G.(1987) "A Study on Syllable Structure and Some  
Processes in its Nucleus in Korean," Mal 12: 25-69.  
Korean Language Institute, Yonsei University.
- Hall, T.A.(1992) Syllable Structure and Syllable-Relate  
Processes in German. Max Niemeyer Verlag, Tubingen.
- Hooper, J.B.(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Iverson, G. & D. Wheeler(1987) "Hierarchical Structures in  
Child Phonology," Lingua 73: 243-57, North-Holland.
- Kahn, D.(1976) Syllable-based Generalizations in English  
Phonolog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Kaye, J.D. & J. Lowenstamm(1981) "Syllable Structure and  
Markedness Theory," in A. Belletti, L. Brandi and  
Rizzi(eds). Theory of Markedness in Generative Grammar,  
Pisa...: Scuola Normale Superiore.
- Kaye, J., Lowenstamm, J. & Vergnaud, J. -R(1985) "The

- internal structure of phonological elements: A theory of charm and government," *Phonology Yearbook* 2: 305-28.
- Reinhart, T.(1976) *The Syntactic Domain of Anaphora*,  
Doctoral dissertation, MIT.
- Selkirk, E.O.(1982) "The Syllable," in van der Hulst and Smith,  
1982, Part II.
- Sells, P.(1985) *Lectures on Contemporary Syntactic Theories:  
An Introduction to Government-Binding Theory,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and Lexical  
Functional Grammar*, CSLI.
- Vennemann, T.(1972) "On the Theory of Syllabic Phonology,"  
*Linguistische Berichte*, 18: 1-18.
- \_\_\_\_\_ (1983) "Sound Change and Syllable Structure in  
Germanic Phonology," *Language* 59(3):514-28.
- \_\_\_\_\_ (1986) *Neuere Entwicklungen in der Phonologie*.  
Mouton de Gruyter, Berlin. New York. Amsterdam.
- \_\_\_\_\_ (1988) *Preference Laws for Syllable Structure  
and the explanation of sound change*. Mouton de Gruyter,  
Berlin. New York. Amsterdam.